

第四十五回 國會 會議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一九六四年九月一日 (火曜日)

第四十五回國會(定期)開會式順

- 一、開會
- 二、國旗에 對한 敬禮
- 三、愛國歌齊唱
- 四、殉國先烈에 對한 默念
- 五、式 辭(議長)
- 六、萬歲三唱(副議長)
- 七、閉會

(司會 河在鳩總務局長)

(午前一〇時開式)

○總務局長(河在鳩) 지금으로부터 第四十五回國會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읍니다

國旗에 對한 敬禮가 있겠읍니다
一同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對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齊唱이 있겠읍니다

愛國歌齊唱은 軍樂隊 前奏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에 對한 默念이 있겠읍니다

(默念)

一同 着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께서 式辭가 있겠읍니다
○議長(李孝祥) 敬愛하는 議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內外實實을 모시고 六代國會로서 처음으로 定期國會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定期國會는 豫算國會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 中에도 이번國會에는 來年度豫算案 뿐만 아니라 今年度 第一回 追加更正豫算案까지 上程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事情으로 追更豫算案이 이렇게 늦게 上程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國內事情으로 본다면 一時가 急한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本人은 可及的이면 이 追更豫算案을 優先的으로 審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政策의 實現이 豫算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事實이므로 豫算決算의 審議라는 것이國會의 가장 重要な 任務의 하나임은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純粹한 愛國心으로 慎重하고도 眞摯하게 다루어 나갈줄 믿고 있습니다
특히 本人이 念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財政上으로 본 國情의 眞實한 把握을 해 주실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目標하는바 祖國의 近代化나 民生苦解決 等々の 問題는 事實情의 眞實한 把握 없이는 不可能한 것입니다
事實上 六代國會 開院初부터 國政監査의 實施가 論議되어 왔던 것도 이때문이 아니겠읍니까?

질안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한푼이라도 效率

的으로 倂개어 倂야 하는 것입니다
萬一 疑心스러운 구석이 있기를망 徹底하게 究明하십시오

그것이 國家將來를 爲하여 有益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政府나 與黨은 무엇을 일부터 隱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것은 變할 수 없는 眞理인 때문이오
그럼으로써 政局이 明朗해질 수 있는 때문이며
도리어 政府나 與黨이 國民의 信賴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大局的 見地에서 綜合的으로 眞實態를 把握 하십시오
些少한 末端을 究詰기로 爲主한다면 오히려 全般的인 觀察力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如何든 本人은 今般의 國政監査를 통해서 여백까지의 모든 疑惑을 拂拭하고 새로운 和氣籠籠한 政局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努力해 주시기를 念願하는 바입니다

말이 先後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마는 閉會期間 동안 여러분께서 첫째 健康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 八月二十日 IPU에 우리國會가 正式으로 加盟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昨今 그 加盟의 諒解條件으로 말미암아 多少 物議가 있는듯 하나 이는 韓國政府를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宣言한 UN總會의 決議와 또 우리國會가 承認한 IPU規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으며 이에 關하여는 現地에 다녀온 代表團의 詳細한 報

關하여는 現地에 다녀온 代表團의 詳細한 報

告와 解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數日內로 代表團이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各自 黨의 事情에 따라 多少 波瀾이 있어서 念慮하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人間社會에는 恒常 變遷이 있는 것이요 더구나 政治社會에서는 不意의 波動이 자주 일

어나는 法인이 됩니다 하지마는 우리 國會로서 는 지난 四十四回 臨時國會부터 다시 政治의 本山

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本人은 기쁘 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多少의 波動은 亦是時

局觀의 差異에서 發生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言論立法만 하더라도 自律적으로 能히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하기 어려운 만큼 內外情 勢가 緊迫하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

습니까? 何如間 政府를 批判하는 것은 좋으 나 政府를 否認하는 것은 自家撞着이 아니겠

습니까? 우리가 仰天俯地하여 秋毫의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公公然하게 合意한 原則이 있고 그에

따라서 行한 正堂堂한 立法活動을 열토당 토아니한 默契 云云으로써 糊塗하라는 것은

本人으로서 는 不快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國會가 民主主義의 殿堂이요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과 協同이 그 原理라 할진대 與 野協調 없이는 國會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

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 境遇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或은 몇 갈래로 나타날 뿐

인 것입니다 事實이 世上은 百人 百色입니 다 強硬派가 있고 穩健派가 있는 것이 問題

가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調和시키느냐는 것

아 問題인 것입니다 서로가 理解하고 서로가 讓步하여 하나의 公約數를 發見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要諦라면 우리 國會가 나아갈 길은

自明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本人은 지난간 自明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本人은 지난간

일을 論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그만 둔다 할지라도 永遠히 그만 둘

수 없는 것은 與野協調의 精神과 그에 따른 活動이라는 것입니다 與野協商을 무슨 屈從이

거나 或은 무슨 夢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通할때에

어찌 서로가 議論함이 없겠습니까? 或者는 내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나라 野黨人士

들의 生理를 모르고 있소 結局은 속고 말것을 아예 잊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고 或者는 또 말하기를

「당신은 實權이 없는지라 무엇을 믿고 당신 과 議論을 한단 말이오」 라고 고 합니다

그러나 問題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虛心坦懷하게 最善의 方法을 可

能한 限에 있어서의 最善의 方法을 摸索하는 데 있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良心이 命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國民이 願하는 것입니다

본인 憲政의 守護와 政權의 平和的交替와 政爭의 止揚이라는 大命題 아래 與野 共同宣言을

提唱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作業이 遺憾 스럽게도 지금은 中斷되어 있습니다

마는 일은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할일이 못할 일로 變 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할 일이란 못 하면 못할대로 더욱 아쉽게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韓日問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우리는 누구를 勿論하고 韓日國交의 正 常化를 願하고 있습니다

政府도 매우 意欲的 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民族的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 습니다

그것이 勿論 全部는 아니라 할지라도 大部分은 우리의 責任에 屬하는 일인 것이라

면 우리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問題가 어찌 그것 뿐이겠습니까?

그래도 國民들은 議事堂을 向하여 무엇을 苦 待하고 있다가 이제 는 지켜서 싸우거나 말아

주었으면 마음이나 便할 것인데 하고 諦念하 는 것이 事實이라면 우리는 再三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좀 멀리 그리고 멀리 눈을 들어 본다면 一部 亞細亞地方에는 風雲이 險惡한데다가

中共의 政治勢力은 擴大一路에 있습니다 中共 間의 摩擦이 多少 있다 할지라도 萬一 中共

이 UN에 加入된다면 우리의 南北統一問題는 갑자기 하나의 焦點이 될 것입니다

未久에 다 저울 이러한 여러가지 情勢에 對備하여 果然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南北書信交換 같은 것이 그에 對 한 對備策의 하나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난 建議한바 있거나와 다 같은 保守黨으로서 우 리에 自身이 서로 鬭爭만 하고 있어야 할 것

인가?

勿論 與野는 各各 名分을 떠나서 存立할 수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各各 名分 때문에 各各 名分을 忘却하는 수가 있지 않는가?

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根本問題를 아직까지 具體
 的으로 다루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人間的 歷史는 一時라도 停止하고 있는 것
 이 아닙니다 歷史는 果然 宿命的인 것 뿐이겠
 음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運命을 開拓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 戒嚴解除要
 求 決議案을 提案 說明할 때에 李相詰議員
 서는 이것이 다만 出發에 不遇하다고 하셨습니다
 山疊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많
 은 할 일들을 與黨이 밀고 나가기만 하면 되고 野
 黨이 壇上占領만 하면 이루어 지리라고 믿어지니
 까? 政府는 결코하면 與黨의 數를 자랑합니
 다 그러나 政治는 數가 問題가 아니요 民心이 問
 題인 것입니다 그리고 民心은 곧 天心인지라
 眞理와 正義에 恒常 따르는 法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主張이라도 그것이 正當한 것이라면 마
 침내는 全體의 贊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要는 아무라도 自由로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雰圍氣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形
 態로든지 壓力的으로 感情的으로 이러한 雰圍
 氣를 破壞하기 때문에 相互間에 間隔이 생기
 는 것입니다 이것이 國民들에게 주는 印象
 은 마치 主權 爭奪같이 되는 것입니다
 與野協調는 勿論이오 黨內協調도 이러한 間隔이
 있는데서 잘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敷衍할 必要조차 없겠습니까마는 民主
 主義의 初歩는 남의 말을 誠意있게 들어주는 데서
 始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말을 들어 보

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臆測捏造하여 自己의 立
 場을 有利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反民主的인 것
 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恒常 우리의 周邊을 混濁하
 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混濁을 淨化하
 고 醇化하는 데 스스로 努力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번 閉會期間 동안에 本人은 言論倫理委員
 會法 撤廢 國爭委員會로부터 建議文을 받은 바
 가 있습니다
 그리고 高亨坤議員外 十五名이 言論倫理委員會
 法 廢止에 關한 法律案을 提出한 바도 있습
 니다 이들은 勿論 앞으로 慎重하게 合法的으
 로 다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國會로서는
 언제나 自己矛盾에 빠져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
 다 勿論 過誤가 있다면 그것을 是正하는 데
 吝嗇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個人이나 機
 關이나를 莫論하고 함부로 所信을 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本人은 言論의 協調없이 政
 局의 安定을 期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므로 서로가 理解를 增進을 시켜서 무슨 妥
 結이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기를 願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閉會期間 동안 各 常任委員會의 活動에는 別
 로 變換한 것이 없었고 商工委員會에서는 與野
 議員이 함께 日本 經濟觀察會 다녀 왔습니다
 全般的으로 各 常任委員會에 있어서 與野協調
 의 氣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國會內의 極度の 混亂은 없으
 야 하겠습니까 勿論 本人의 未熟하고 不德한
 所致이겠으나 何如間 激突과 暴行은 避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威信을
 墮落시키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中에도 지나면은 여러분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自制와 雅量으로 因하여 그 危機를
 免한 것은 多幸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憲政을 守護하는 大旗幟下에서
 國威를 宣揚해야 할 때라 생각 합니다 國會
 가 健實하게 發展됨으로써 國民의 信賴와 友
 邦의 信任이 더욱 두터워지도록 해야 할 때
 라 생각 합니다 優秀한 우리 民族의 智力과
 體力과 文化와 傳統이 어찌하여 恒常 貧困에
 만 머물게 하였습니까? 今 會期에는 우리가
 할 重要案件들을 가장 圓滿하고도 迅速하게
 處理할 분야라 앞에 말한 基本問題들을 다
 루어 나갈 기틀을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過去에 間或國家豫算을 政治的으로 다룬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純粹하게 愛
 國의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良心이 命하는 것은 바로 國民이 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勇敢하게 前進할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恒常 여
 러분의 福利 같은 愛國愛族의 至誠을 믿기 때
 문에 이번 定期國會의 成果가 實로 클 것을
 期待하여 疑心치 않습니다
 오늘 모처럼 參席의 榮光을 주신 大法院長閣
 下 各 友邦使節 여러분에게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同時에 앞으로 더욱 親善과 協調를
 敦篤히 하여 주시기를 懇請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政府要人 各位의 健康을 다
 시 한번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 합니다

○總務局長(河在鳩) 다음은 張副議長님 先唱으

로 萬歲三唱이 있겠습니다

一同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副議長(張罔淳) 제가 萬歲三唱을 先唱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歲三唱)

○總務局長(河在鳩) 이것으로써 第四十五回 國

會 定期會 開會式을 마쳤습니다

(午前一〇時二五分閉式)